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2호 【루계 제25030호】 주체104(2015)년 9월 9일 (수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사 설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위용떨치는 무적필승의 강국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총돌격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맞이하고있다.

9월 9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가 탄생한 력사적인 날이다. 우리 인민의 높은 존엄과 영예, 값높은 삶과 휘황한 미래는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에서 부강조국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웁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이다.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나라는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영원히 담보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게 된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9월 9일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일대 경사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공화국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으며 20세기를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서사시로 수놓아올수 있었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모든 토대들을 다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사적 공적을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조국을 어버이수령님의 나라,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여오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밑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오신 성스러운 로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튼튼히 다지시여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것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이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는 지금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정치신조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강령적지침을 제시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과 숨결로,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맥동치게 하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헤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굴의 기상과 담력은 우리 조국의 필승의 위용이며 일행천리의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시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공화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조국은 악동하는 젊음으로 끊임없이 비약하는 전도양양한 나라, 백두의 억센 기상이 하늘에 닿은 신념의 강국,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주의 신념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나라이다.

령도자의 자주적신념은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전도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이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신념과 의지, 자주적대가 강한 희세의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적신념은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는 가장 견결한 혁명적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이 적들과의 총포성없는 군사적대결전에서도, 치렬한 정치외교전에서도 련전련승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올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자주는 정의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다. 지금 세계는 강철의 령장을 높이 모시고 온갖 적대세력들을 단호히 짓부시며 자주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리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 우리는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파감히 헤치며 우리의 힘으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왔다. 그 진정한 힘, 강대한 힘이 바로 자주적신념의 최강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백승을 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이다.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력을 굳건히 다져나가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고 나라의 부강번영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동서고금의 뛰여난 명장들의 지략과 전법, 령군술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천재적인 지략과 탁월한 전략전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신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다.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 짓고나가시는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형세도 순간에 역전시키시는 림기응변의 신묘한 지략을 지니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 군력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있다.

조국의 험산준령을 넘고넘으시며 최전연초소들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의 길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천백배로 강화되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술하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미제침략자들은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적들은 이 땅우에 감히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무비의 담력, 령활무쌍한 전략전술을 지니신 백두의 선군령장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계시고 자위적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때문이다. 강철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백승의 위력을 떨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거창한 변혁과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의 락원이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다. 인민의 꿈과 리상은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서만 현실로 꽃필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세계에서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인민관을 지니시고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계신다.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창조와 건설의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과 고결한 의리가 차넘치는 세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맥박치는 세계, 우리 인민의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돌진하는 비상한 창조의 세계이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

이민위천은 우리 당과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시기에도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며 무상치료제, 무료의무교육제와 같은 사회적시책들을 중단없이 실시해왔다. 인민군대가 과학자들과 교육자들, 로동자들과 아이들, 로인들을 위한 희한한 궁전,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고 큰물피해를 입은 도시복구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내기 위하여 헌신분투하는것은 인민을 최대로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숭고한 화폭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품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주체의 강성국가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국가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공화국의 끝없는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국가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국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주체의 최고성지이며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우리 조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 세상 끝까지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도 운명도 함께 해나가는 원수님의 진정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여야 한다.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허물고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인민생활향상의 대진군이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사상, 우리 식, 우리 힘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철저한 체현자인 인민군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일본새, 열렬한 애국심을 적극 따라배워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우리의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이다.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가며 인민정권을 영원히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위업이며 최대의 숙원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

나는 생일 50돐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의 옳바른 령도밑에 수리아정부와 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이겨내며 나라의 안전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나는 수리아인민이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과 테로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며 당신들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과 수리아사이의 동지적우의와 전투적련대성의 관계가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주체104(2015)년 9월 8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쎄인,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쥬제 에두아르두 두스 싼뚜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을 대표하여 례 주이 롱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무관이 8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각 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친선과 선린의 훌륭한 전통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건설적인 방향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호혜적인 쌍무협조가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전반의 안전과 안정강화에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웨 . 뿌 찐

2015년 9월 9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

2015년 9월 9일 아바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뜻깊은 공화국창건일을 경축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인민문화궁전 대회장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가 형상되여있었으며 《경축 67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곽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홍인흡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대회가 시작되였다.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자》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철의 의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있어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으며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울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빛나는 조국》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걸출한 령도밑에 조국의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며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련일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해마다 커다란 기쁨과 감격속에 맞이하는 9.9절이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천출명장의 위인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주체위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한없이 설레이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이으시여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백두산대국의 위용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상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땅 창공높이 람홍색국기가 휘날린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성상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천재적예지와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여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해오신 거창한 투쟁과 변혁의 력사였으며 인민대중의 세기적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긍지높은 력사입니다.

겨레와 더불어 세계인민들이 높이 칭송하면서 한결같이 우러르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세워주시고 불패의 강국으로 이끌어주신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우리 재일동포들은 조국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꿋꿋이 지키고 참된 삶을 누리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시기 일본땅에 끌려와 피눈물만을 흘려야 했던 재일동포들에게 재생의 길을 안겨주시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독창적인 로선전환방침으로 총련을 무어주시여 애족애국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공화국국적법으로 재일동포들을 보호해주시고 총련의 각계층 대표들에게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나어린 학생들까지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전설같은 사랑을 받아안은것은 오직 우리 재일동포들만이 지닐수 있는 최상의 특전이고 영광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총련일군들을 한전호속의 동지로, 재일동포들을 한식솔로 뜨겁게 불러주시고 총련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온갖 친어버이사랑을 다 베풀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는 강령적교시를 거듭 주시며 강성국가의 대문에 들어서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뜨거운 믿음을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은총은 우리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원무궁토록 새겨질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은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더해만 가고있으며 대원수님들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태양의 력사로 영원히 흐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총련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으며 총련결성 60돐에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강인 강령적서한을 친히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에서 진행되는 국가행사들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꼭꼭 불러주시여 주석단에 세워주시고 총련대표단성원들이 올리는 인사도 정깊게 받아주시며 사랑의 기념촬영까지 해주시면서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공화국창건절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부풀어오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강성국가건설위업과 반미대결전도, 조국통일위업과 총련의 애족애국운동도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서한에서 가르치신대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조직과 동포들의 혼연일체의 힘으로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 집중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과 총련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 신념교양을 심화시켜 총련의 모든 일군들과 새 세대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성을 심장깊이 새기며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고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 청년들과의 사업,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열리고 민족분렬도 끝나게 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리겠습니다.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보란듯이 열고 약동하며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중요한 일익을 맡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백승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과 가장 뜨거운 흠모의 정을 담아 21세기 선군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4(2015)년 9월 9일 일본 도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내각총리 박봉주동지에게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봉주동지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훌륭한 축원을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지난 67년간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위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있으며 조선이 앞으로의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신 쌍방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들은 조선측과 함께 중조관계의 장기적이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극강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덕강

2015년 9월 8일 베이징

공화국창건 67돐 경축집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단마르크, 이슬란드, 뽈스까, 남아프리카에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집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1948년 9월 9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고있다.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조국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공화국의 장구한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또한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 애국렬사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지성을 다하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국력이 막강하고 인간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진정한 강국에서 살려는것은 인류의 오랜 지향이고 념원이였습니다.

력사와 현실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은 오직 걸출한 령도자, 인민의 수령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투쟁하는 나라와 민족만이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지난날 국권을 빼앗기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세상에 존엄떨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강성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대전의 나날에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몸소 밀림속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면서 해방된 조국땅우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실 원대한 뜻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경험과 해방후 이룩하신 건국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자주시대 국가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인민정권의 위대한 탄생이였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민족사적사변이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높은 민족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등장하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세기를 두고 옹어리진 약소국의 치욕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근 70년을 헤아리는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불패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구현한 자주독립국가건설사상과 강성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강철의 의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를 일떠세우심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렬강들속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위치로 하여 약소국의 운명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우리 나라가 당당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현대조선의 력사는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와 민족도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나라로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투철한 자주의 신념으로 전진하며 승리해온 주체의 강국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주체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을 생명으로 틀어쥐시고 공화국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일관하게 고수하며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우리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전략적방침과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공화국이 한치의 탈선이나 추호의 헛갈림도 없이 주체의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올수 있게 한 자주의 대강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였습니다.

사대와 교조,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의 력사를 단호히 끝장내고 주체의 조국, 자주의 강국으로 빛을 뿌려온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는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영원한 기치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며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만이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하여 승승장구해나가는 진정한 강국으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정권이 이민위천을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국가건설리념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국호와 군대의 이름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부름과 함께 불리우며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고난과 시련의 나날에도 변함없이 실시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은 공화국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온 과정은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공화국을 이끄시는 전기간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혁명대오를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하시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지반을 굳건히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온 사회가 일색화되고 전체 인민이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일심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의 혼연일체는 우리 민족이 끝없이 강성할수 있는 최대의 국력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입니다.

오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인권》문제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의 우월한 국가사회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있지만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절대로 허물지 못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우리 인민이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수 있는 강력한 경제토대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반세기이상 지속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우주기술과 CNC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경이적인 현실,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공화국의 긍지높은 모습은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날 강성국가의 찬란한 래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얼어주신 선군의 길을 따라 백승의 위력을 떨쳐온 불패의 군사강국입니다.

강한 군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의 보검이며 우리 시대, 반제자주시대 강국의 기본징표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탄생의 첫 기슭에서부터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속에서 백승만을 떨쳐올수 있은것은 선군혁명로선을 국가건설의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왔기때문입니다.

선군혁명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도 있다는 혁명원리에 기초하시여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도 못되는 청소한 인민의 나라를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달려든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수십년간에 걸치는 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일찍부터 군력강화를 위한 간고한 길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걸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류례없이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백승을 떨치며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오른것은 력사에 특기할 기적입니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혁명무력은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철벽의 요새를 이룬 자위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습니다.

총대로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고 총대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왔으며 총대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강국의 위력은 자위의 위력이며 자위의 위력은 강철의 령장, 희세의 선군령장을 대를 이어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 때 담보된다는것을 세계정치사에 강국건설의 진리로 뚜렷이 새겨놓았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최대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권위와 영향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륭성번영의 시대를 안아오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백두산대국의 가장 고귀한 재부로,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공화국을 짧은 기간에 가장 강하고 흥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만들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와 군사뿐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해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계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빛나게 계승되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것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과 후대들을 위한 열화와 같은 사랑으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습니다.

백두의 신념과 강철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심으로써 오늘 우리 공화국은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은 오늘 당의 경제강국건설,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속도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속도인 조선속도,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결정체로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우리 나라 산업시설,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표준단위들이 전국도처에 일떠서고있으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교육강국,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날에날마다 창조되고 당에 끝없이 충직한 수백만 청년대군을 가진 세상에 없는 청년강국의 위력으로 신심높이 비약해나가는것이 오늘 우리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입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조국이고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태양민족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며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의 기치따라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에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애민의 한생이 어려있고 금은보화 가득찬 내 나라,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여갈 우리 당과 천만군민의 억척같은 신념이 담겨져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줄것입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진군길을 다그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의 운명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기치이시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원수님을 뜻과 정으로 따르고 신념과 의리로 받들며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 당, 우리 공화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하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숭고한 공민적의무를 다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입니다.

정권기관일군들은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며 강성국가건설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입니다.

온 겨레는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북남관계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근 70년에 걸치는 장구한 세월해와 벌 찬란히 빛나는 우리 조국의 승리와 존엄의 상징으로 나붓겨온 람홍색공화국기는 앞으로도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표대로 세기의 하늘가에 무궁토록 휘날릴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로친선의 해를 뜻깊게 장식한 공훈국가합창단의 로씨야방문공연

조국해방 70돐과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조로친선의 해인 올해 두 나라사이에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공훈국가합창단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조선과 로씨야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유익하고 호혜적인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고위급래왕이 진행되는 등 쌍무관계가 전례없이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의 로씨야련방방문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공훈국가합창단의 로씨야원정공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술사절단으로 로씨야를 방문한 공훈국가합창단은 수도 모스크바와 원동의 하바롭스크에 대한 원정공연을 진행하여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로씨야정부와 인민은 조로친선의 해에 로씨야를 방문한 조선의 명성높은 예술사절들을 친선의 정을 안고 따뜻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여러차례나 모신 영광을 지니였던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의 시민들은 조로친선의 년대기에 뜻깊은 사변들을 아로새긴 도시에서 조선의 관록있는 예술단체의 공연을 보게 된 기쁨에 넘쳐있었다.

8월 31일 저녁 공훈국가합창단이 청봉악단과 합동출연하는 초대공연이 로씨야의 이름있는 력사 및 문화대상인 챠이쨥스끼명칭 음악당에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국가의 장중한 주악으로 막을 올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관현악과 녀성중창과 합창 로씨야노래련곡 《평화를 위하여》 등의 종목들을 올려 국보적인 예술단체인 공훈국가합창단의 훌륭한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 당을 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날리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끝까지 이룩해갈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무적필승의 의지, 로씨야인민의 정신세계와 민족적정서를 완전히 새로운 맛이 나는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중들의 심금을 세차게 틀어잡았다.

관현악의 높은 경지를 보여준 《세계명곡몰음》을 비롯하여 종목이 끝날 때마다 관람자들은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터쳐올리고 《훌륭하다!》, 《잘한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저저마다 무대우로 올라가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남성5중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가 끝났을 때에는 로씨야인민들이 전승의 날에 누구나 탈고 다니는 승리상징띠가 무대에서 가수들에게 전해지며 정의와 진리의 승리를 지향해나아가는 두 나라 인민의 마음을 하나로 뜨겁게 이어주었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혁명의 성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시고 백두산의 기상으로 장내를 세차게 뒤흔든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는 공연을 최절정에로 승화시키며 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우리 나라의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인 청봉악단이 관람자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생신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출연하여 황홀한 음악의 세계를 펼치였다.

청봉악단의 가수들은 녀성중창 《로씨야처녀노래련곡》을 비롯하여 로씨야인민들이 사랑하는 노래들을 독특한 성색울림의 안삼블로 멋들어지게 형상하여 장내를 격정과 흥분으로 들끓게 하며 조로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일어서서 《최고다!》라고 연방 환호를 터치면서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으며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출연자들에게 연방 안겨주며 그들의 공연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이 9월 1일 모스크비치문화쎈터에서 진행한 합동공연도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날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의 관록있는 가수들이 출연한 로씨야노래 남성2중창 《군항의 밤》, 조선노래 남성독창 《내 고향》은 조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전통적인 친선의 정을 잘 보여주었다.

모스크바에서 대파문을 일으킨 공훈국가합창단은 9월 3일 원동지방의 문화중심지인 하바롭스크시에 있는 하바롭스크변강음악극장에서도 성황리에 공연무대를 펼쳐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공연시작에 앞서 하바롭스크변강정부 부수상이 무대에 나와 공훈국가합창단의 하바롭스크방문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하바롭스크시민들은 조선인민군군악단이 이곳 변강에서 열린 국제군악축전에 두번이나 참가하여 이름을 날린데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조선의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은 이날 공연에서도 당과 수령을 백두산총대로 받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억세게 걸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날로 두터워지는 조로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정을 격동적이며 참신한 예술적형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어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공연은 로씨야의 각계인사들과 출판보도물들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원동발전성 국무비서겸 부상, 주조 로씨야대사,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챠이쨥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정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인사들과 모스크바시민들은 《로조친선의 해를 뜻깊게 장식한 가장 큰 선물》, 《쌍무관계의 긴밀감을 다시한번 시위》, 《고상한 도덕과 진정한 문화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준 표본》, 《세계적인 관록과 명성을 가진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모스크바에서 보게 된것은 커다란 행복》, 《정신이 번쩍 들고 조선의 힘과 슬기를 절감한 공연》, 《각이한 양상의 노래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해내는 최고의 합창단》, 《청봉악단은 부드러운 녀성미로 가득찬 만점짜리 악단, 새롭고 생신한 악단》 등의 찬사들을 저저마다 터치였다.

모이쎄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의 안삼블지도원은 로씨야인민에게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는 명절을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크나큰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의 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본 챠이쨥스끼명칭 음악당 판장은 정말 황홀한 예술단체이다, 우리 로씨야의 알렉싼드로브명칭 군대협주단도 특색있지만 조선의 공훈국가합창단은 그야말로 독특하고 멋있다, 놀라울정도로 훌륭한 예술단체를 가지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하였다.

이들뿐아니라 수많은 관중들이 공연이 끝난 후 흥분된 심정을 안고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공연에 대한 이야기로 좀처럼 자리를 뜰줄 몰랐으며 공연을 취재한 로씨야의 출판보도기관 기자들도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의 하바롭스크공연에 대한 반향도 열렬하였다.

하바롭스크변강정부 부수상, 하바롭스크변강음악극장 지배인을 비롯하여 공연을 본 수많은 인사들이 대음악서사시를 방불케 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에 심취되여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좋은 계기》, 《공훈국가합창단은 최고의 최고》, 《존경을 받을만 한 본보기적인 예술단체》 등 경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의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원정공연에서 관람자들에게 각별한 여운을 남긴 노래는 《가리라 백두산으로》였다.

하바롭스크변강정부 문화상은 가장 마음에 드는것이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열화같은 존경과 흠모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함축된 참으로 훌륭한 노래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조선의 용감성, 힘의 원천이 바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에 함축되여있다고 한 모스크바의 국제법률가를 비롯하여 많은 관람자들이 조선의 넋과 기상이 맥박치는 이 노래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데 대하여 말하였다.

로씨야의 텔레비죤방송들과 인테르확스통신 등 많은 출판보도물들은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중들의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에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로씨야 《5통로》 TV방송은 문화관계보도의 첫 순서로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공연모습을 크게 보도하였다.

렌떼웨 TV방송은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합동공연무대를 펼친 챠이쨥스끼명칭 음악당이 강한 충동으로 뒤흔들렸다고 하면서 모든 가수들과 연주가들이 그 어떤 침략자들도 처물리칠 각오로 충만된 공연은 년중 가장 비상한 공연으로 되였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얼마전에 조직된 청봉악단의 이번 로씨야공연은 악단에 있어서 첫 공연이라고 할수 있으며 관중의 호응을 볼 때 대성공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신문은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주체조선의 수도에서의 열병식이 그대로 모스크바의 예술극장에서 계속 이어지고있다는 느낌을 안겨주었다고 평하였다.

즈베즈다 TV방송은 우주로케트발사로부터 철령아래 사과바다에 이르기까지 무대배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것이라고 하면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에는 조선의 주체철학이 담겨져있다고 격찬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한결같이 조선인민과 로씨야인민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한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공연이 로씨야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과 로씨야인민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로씨야노래 《승리의 날》이 울려퍼지자 전체 관중이 열렬히 호응한데 대하여 주목을 돌리였다.

조선인민과 로씨야인민의 마음을 친근하게 이어주며 로씨야땅에 울려퍼진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민족적향취가 짙은 노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선군혁명천만리를 끝까지 이어갈 우리 인민의 필승의 기개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투쟁에서 어깨겯고 친선의 뉴대와 련대성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 성원들은 로씨야방문기간 파쑈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떨쳐일어나 피흘려 싸워 위대한 전승을 이룩한 쏘베트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을 보여주는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을 참관하였으며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고 크레믈리성벽곁에 있는 무명전사묘를 돌아보았다.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에 대한 원정공연으로 로씨야인민들에게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긴 우리 예술사절단의 로씨야방문은 조로 두 나라 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조선과 로씨야의 관계가 오랜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이고 새 세대들속에 굳건히 이어지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증시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과 청봉악단의 로씨야방문이 보여준것처럼 조로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더욱 긴밀해지고있는 친선협조관계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친근한 린방인 로씨야에서의 강력한 국가건설을 추동하며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에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보내주신 설비들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굴지의 만화영화창작기지로 변모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는 오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만화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몸소 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과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이번에 또다시 만화영화제작공정을 보다 현대화, 과학화, 콤퓨터화, 수자화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설비들을 일식으로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설비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7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박춘남 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촬영소일군들,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가 전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설비들에는 촬영소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만화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우리 만화영화를 세계의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울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만화영화창작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설비들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이어 부총장 량정철, 단장 현창만, 실장 오성남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화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투쟁기풍으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만화영화들을 명작으로 창작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당창건 70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만화영화창작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창작가, 예술인, 기술자들의 예술적기량과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경쟁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설비들의 관리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짜고들어 진행하며 선진영화제작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촬영소를 세계적인 만화영화제작기지로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천출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

여러 단위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현지지도표식비가 국립교예단, 자강도전자업무연구소,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건립되였다.

국립교예단에 세워진 현지지도표식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차례 평양교예극장에 나오시여 민족교예를 장려하고 체력교예와 희극교예, 동물교예, 요술종목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교예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내용이 새겨져있다.

자강도전자업무연구소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97(2008)년 12월 16일 이곳을 찾으시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며 프로그람산업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을 담은 현지지도표식비가 건립되였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체103(2014)년 11월 26일 촬영소를 찾으시여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안고 현지지도표식비를 세웠다.

국립교예단, 자강도전자업무연구소,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건립된 표식비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현지지도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이 8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 로동자들,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김문희는 웅변 《위대한 건국의 어버이》에서 공화국의 창건을 위하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을 걸으시며 력사상 처음으로 이 땅우에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조국이 없어보라》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평양철길대 직맹이동해설강사 류창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항일대전의 불바다를 헤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기 위해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쉬임없이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웅변 《눈보라한생》에 출연한 평양가죽이김공장 직맹이동해설강사 김영복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대하여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는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눈바람, 비바람을 다 맞으시며 김일성민족, 사회주의조선의 강성과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위인의 위대한 한평생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평양역 초급직맹위원장 남춘빈은 《영원한 기적소리》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낮과 밤을 이어 한평생 타고가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고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평양시승강기관리국 로동자 김혜경은 웅변 《나는 선군조선의 공민이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이 있어 선군조선의 국력이 강해지고 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온 세계에 더 높이 떨쳐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이으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조선의 공민의 의무를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웅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에서 안주견직공장 로동자 김은정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당창건 70돐을 향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한마음을 담은 노래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를 힘차게 불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8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무도회장은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강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뜨거운 애국충정을 바쳐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김일성, 김정일조국, 우리 공화국의 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참가자들의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만방에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홀라리》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아름다운 춤물결을 일으켜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며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는 끝없는 영예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조국을 위하는 길에 별처럼 생을 빛내여갈 열의를 안고 《인민의 나라》,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를 비롯한 노래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나라의 꽃, 사회의 꽃, 가정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녀성들의 긍지를 더해주는듯 《녀성은 꽃이라네》, 《우리 집사람》 등의 노래들이 련이어 울려퍼지며 무도회장을 더욱 흥성이게 하였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로 끝난 경축무도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본분을 다해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청진항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가 7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니우에국적선박 《하오판 2》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경험을 쌓으신 김일성주석께서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여 건국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였으며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공민으로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높은 국제적권위와 불패의 위력, 공화국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여있다고 말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존엄떨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의 부강번영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8일 주조 유엔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강성부흥과 민족만대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만경대 방문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방문하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고 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고 말하였다.

축하단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말디브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계춘영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3일 아브둘라 야민 아브둘가이움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브둘라 야민 아브둘 가이움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조선인민이 말디브인민에게 물심량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위한 문제들에서 호상협조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말디브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조선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강력한 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북남적십자실무접촉 진행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7일과 8일 판문점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에 의하면 북과 남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적십자회담을 열고 호상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 도착

후꾸야마 마사끼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림호룡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 맞이하였다.

로씨야에 가는 인민보안부대표단 출발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제2차 세계소방 및 구조연단에 참가하기 위해 리성철 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대표단이 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인민보안부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 교도통신사대표단

당의 호소를 받들고 군민이 떨쳐나섰다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라선시에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과 라선시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동주민들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큰물피해를 가실 열의밑에 피해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복구전투에 참가한 많은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매일 1 500여㎥의 감량과 퇴적물을 처리하면서 선봉지구의 거리와 마을들을 원상복구하고있다.

수십개소에 달하는 철길로반과 철다리를 복구하여 후창—선봉 철도운행을 보장하고 송전선공사를 진행하여 일시 중단되였던 전기를 피해지역들에 보내줄수 있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를 복구하여 먹는물을 보내줄수 있게 하였으며 강하천정리와 농경지의 피해를 가시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지난 8월말 선봉지구를 비롯하여 라선시의 여러 지역이 례년에 없는 무더기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큰물로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파괴되고 10여개의 크고작은 다리들과 도로가 끊어졌으며 철도운행과 통신, 전력공급이 일시 중단되였다. 많은 면적의 농경지들이 침수, 류실되고 수원지들이 파괴되였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향상시킬수 있게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큰물피해복구를 책임진 련합지휘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큰물피해를 가시고 라선시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군민련합작전을 펴고있다.

피해복구일정을 대상별로 면밀히 세우고 설계를 시급히 완성하여 시공단위들에 보내주는것과 함께 자재소비량을 정확히 따져 철저히 보장하게 하고있다.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제때에 운반하기 위한 수송조직을 짜고드는 한편 일군들이 철다리복구를 비롯하여 중요복구대상들을 맡고 내려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철도성과 라선철도국, 라선철도건설려단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파괴된 철길구간들과 철다리 1차복구를 와닥닥 다그쳐 끝냄으로써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이 지체없이 현지에 가닿게 하고있다.

라선시송배전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력공업성의 지도밑에 전력망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 선봉지구의 많은 지역의 전력망을 복구하였다.

라선시당위원회에서는 현장방송선전과 직관선동을 비롯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피해복구전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피해복구전투에 진입하여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살림집과 공공건물보수, 다리와 도로복구, 강하천정리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시의 가두인민반원들은 당의 사랑과 은정에 충정으로 보답할 마음안고 이른새벽부터 밤늦도록 전투를 벌려 며칠동안에 수천㎥의 감량과 퇴적물을 쳐내고 많은 면적의 도로와 구내길을 정리하였으며 침수되였던 살림집을 복구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설계연구소와 라선도시설계정보연구소 연구사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수백통에 달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설계를 짧은 기일에 끝냄으로써 복구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함경북도에서 라선시민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면서 피해복구전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청진철도국과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철다리와 다리복구를 비롯하여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고있다.

특히 만수대예술단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라선시에 예술인, 작가들로 무어진 소편대와 창작집단을 파견하여 기백있는 예술선동활동과 창작전투를 벌림으로써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일본당국이 총련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담화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정치적탄압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난 6일 일본당국은 이른아침부터 30여명의 경찰들을 내몰아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에 대한 횡포한 수색을 한데 이어 총련 혹가이도본부와 본부회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동포들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식당을 경영하는 한 재일동포가 조청일군과 학교교원들을 실지 고용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그들의 명의로 고용보조금을 받은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기죄》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업하는 학교와 총련본부 회관에 대한 날강도적인 수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고용보조금급부신청서의 작성을 도왔다는 구실로 이전 총련 혹가이도상공회 경리실 부실장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총련본부 회관내에 있는 상공회사무실을 강제수색하였다.

이번에 일본당국이 그 무슨 《사기죄》를 구실로 수많은 깡패들을 내몰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파쑈적폭거를 꺼리낌없이 감행한것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며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탄압만행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극도로 긴장된 조선반도정세가 해소되여가고있고 더우기 공화국창건절을 앞둔 전야에 일본당국이 또다시 반총련광대극을 벌린 목적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위상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때에 총련이 비법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단체인것처럼 외곡하여 반공화국, 반총련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계단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를 통해 총련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속심의 발로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날로 가증되는 대결적인 반공화국책동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는 최근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감행하고있는 강제수색과 체포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력사적으로 일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극구 편승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과녁으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악랄하게 벌려왔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적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조선민족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우리 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이야말로 일본이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 백년숙적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증오심은 천백배로 높아질것이다.

일본당국이 아무리 허위와 날조로 반총련탄압소동에 매달린다 하여도 총련의 의로운 애국애족활동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일본당국이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유린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한 재일동포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일본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일본당국의 태도를 주시해볼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8일
평 양

우리 나라 김명혁선수 영예의 제1위 쟁취

2015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김명혁선수가 2015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남자력기 69kg급경기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지난 6일 타이에서 시작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이란, 월남을 비롯한 3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170명이 참가하고있다.

8일 남자력기 69kg급경기에 출전한 김명혁선수는 순간재기와 빠른 추기, 재치있는 련결동작으로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1위를 함으로써 종합 1등으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날 남자력기 69kg급경기 끌어올리기에서 권창일선수는 동메달을 받았다.

한편 앞서 있은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신철범선수는 추켜올리기와 끌어올리기에서 각각 2, 3위를 하고 종합 2등을, 녀자력기 53kg급경기에서 김수련선수가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2, 3위를 하고 종합 2등을 하였다.

또한 녀자력기 48kg급경기에서 백일화선수는 추켜올리기와 끌어올리기에서 각각 2, 3위를 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결성 70돐 대표단이 떠나갔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김현일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결성 70돐 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활발히 진행되는 노래보급

정주시 흑룡협동농장 청년분조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노래들에 대한 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분조원들모두가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농사일에서 청춘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분조장 김정근동무는 새 노래들이 나올 때마다 남먼저 배운 다음 분조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있다.

청년분조원들은 《인정의 세계》,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등 많은 노래들을 배우고 널리 부르면서 농사일을 다그치고있다.

청년분조에서는 노래경연과 노래해설모임도 자주 조직하여 청년분조원들이 하나의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담겨진 깊은 뜻을 새겨보며 부르도록 하고있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청년분조원들은 우리 청년들을 오늘의 총공격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끊임없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드높이 당면한 농사일에서 청춘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림 영 남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 만대에 길이 빛나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백두령장들을 높이 모시여 승리만을 떨쳐온 선군조선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사의 갈피에 뚜렷이 새겨져 빛나는 성스러운 그 이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성하고 위엄있는 그 이름을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심장속에 새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입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이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사회주의리념이 출현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되게 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건설이 어느 나라에서나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옳바로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지난 세기 80년대말, 90년대초는 사회주의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사회주의는 일시적인 좌절에서 벗어나 곧바른 한길로 전진할수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이 창건된 첫 시기부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몰아오는 광풍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공화국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하시였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휘몰아치는 현대수정주의자들과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물리치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고 끊임없는 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선군사상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다져지게 되였다.

외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시대는 크게 변했다. 더이상 북조선은 고립되여있지 않다. 북조선은 단독으로라도 승리할수 있는 군사력을 쌓아올리면서 국제적인 대미포위망까지 완성한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여있는것은 북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다. 현재의 상황은 북조선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혁명사상과 리론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21세기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전략적대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 력사적공적이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선군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총대에 의거하여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풍파를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무진막강한 혁명무력과 강력한 국방공업을 가진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자랑떨칠수 있었다.

언제인가 로씨야의 어느 한 군사력사전문가는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글에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이전에 북조선을 멀리하던 나라들 지어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에 가담하였던 나라들도 이 시대적흐름에 합세하고있다. 5천년의 조선민족사에서 오늘처럼 조선의 지위가 높아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라고 썼다.

총대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의 력사는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앞길을 밝혀주고있기에 우리 공화국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를 가슴에 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나아갈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탁월한 지략과 불멸의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제국주의반동들의 끊임없는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영웅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되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이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천만군민에게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수령, 당, 대중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불패의 강국이다.

수령과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건설해나가는 국가는 인민의 나라로 번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사분오렬되게 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것이 력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숭고한 믿음과 의리로 굳게 뭉쳐진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혼연일체가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이 막아나서고 거창한 혁명과업들이 제기되고있지만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오직 곧바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천만군민이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충정과 의리로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의 길에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책동을 파감히 물리치면서 사회주의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지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인민의 나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칠것이다.

라 명 성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서

인민존중의 새 전설

1980년대 초엽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당시) 아스까다 이찌오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를 만나주시였다.

그는 현대적인 주택구역이 형성된 문수지구를 돌아본 소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나서 문수거리에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심으면 좋을것 같다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렸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심어도 나쁘지 않지만 사과나무에는 벌레가 잘 생겨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며 정전직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날 한 로인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로인은 편지에서 평양을 예로부터 류경이라고 불러왔는데 왜 가로수로 버드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나무를 심는가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양의 여러 거리들에 버드나무를 심도록 하였다고, 우리는 금수산의사당(당시)앞거리에도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평양역에서 시내중심으로 들어오는 도로옆에도 버드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스까다는 인민들의 의견을 그처럼 존중하시는 그이의 고매한 인민적풍모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그때 로인의 편지를 받아보고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며칠동안 잠도 오지 않았다고, 평양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도록 당중앙위원회에서 토의한 다음 그 로인에게 평양에 버드나무거리를 꾸리겠다는 회답편지를 써보냈다고 감회깊게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아스까다는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평범한 로인에게 회답편지를 보내준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인민을 제일로 존중하시는 주석각하께서만이 꽃피우실수 있는 인민존중의 새 전설입니다.》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여기시는분

어느해인가 에꽈도르의 한 출판사 총사장이 우리 나라의 한 중앙병원을 돌아본적이 있다. 그때 그는 그곳에서 어느 한 병력서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슴뜨거운 사연을 알게 되였다.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천지구에서 평범한 한 로동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중태에 빠지게 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은 로동계급의 세상인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를 소생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행기를 띄워보내게 하시는 비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은 그대로 불사약이 되여 죽음의 계선에서 헤매이던 그 로동자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여 대지를 활보하게 하는 기적을 낳았다.

총사장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며 병력서의 다음장을 펼치던 그는 더욱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환자치료를 위하여 무어진 의료집단의 구성

원사, 교수, 박사 10여명

의사, 간호원 10여명

—환자치료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사향을 비롯한 고가약 72종

—환자에게 수혈한 피근 6L

…

참으로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현실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올 때마다 받아안군 하던 감격이 다시금 북받쳐올랐다.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신조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런 인간사랑의 신화를 창조하실수 있는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대하처럼, 봄날의 해빛처럼 차넘치고있다. 바로 이 위대한 사랑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림 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나라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프랑스인 마르세이유 가르띠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방문은 서방동료들과 나의 머리속에 들어찼던 온갖 잡생각을 뒤집어엎고 나의 생활관을 변화시킨 놀라운 체험으로 되였다. 아마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일것이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입고 다닌다. 서방통신들의 선전으로 굳어진 우리의 생각처럼 남성들과 녀성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은것이 아니였다. 서방에서 떠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다.》

얼마나 외곡된 선전만을 들어왔기에 평양에 온 외국인들은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는가.

우리의 생활은 소박하고 평범하다. 여기에 놀랄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왜 하나같이 조선방문에 대한 소감을 펼칠 때마다 밖에서 들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는가.

최근 이란의 주요통신인 파르스통신사 사장도 어느 한 나라 중요인물과 만난 자리에서 서방의 주요언론들의 허위보도때문에 세계는 많은 사변들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있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와 조선에 대한 보도자료들은 모두 거꾸로 된 온당치 못한것들이며 두 나라의 현실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이것은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보도의 사명을 어기고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외곡된 자료를 끈질기게 선전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진실성과 객관성, 신속정확성은 보도활동에서 생명과도 같은 첫째가는 사명이다.

이것을 어기는것은 보도가 아니라 오보, 허튼 정보로서 세계를 우롱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이러한 오보, 허위보도들이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제멋대로 《보도》되고있다. 그러한 《보도》들을 날리는 언론들은 례외없이 미국의 꼭두각시들이다.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조선처럼 시시각각 핵위협을 당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조선에 대한 핵위협은 오직 한곳 즉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안달아하는 핵대국의 가장 저렬한 처사에 놀아나는 멍텅구리들이다.》라고 단죄하였다.

세계제패에 환장이 된 미국은 그 어떤 위협공갈에도, 전대미문의 고립제재책동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우리에 대한 악선전을 그토록 비렬하게 벌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경쟁적수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반동적인 선전공세를 강화하고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지난 8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간 유럽의 한 유명한 악단의 말을 들어보자.

그들은 조선은 외부세계가 묘사한것과 전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대단히 훌륭하다, 조선사람들이 보여준 겸손성과 선의는 진실한것이였다, 조선전쟁시기 미국의 폭격을 받은 평양은 완전히 딴 모습으로 변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평양은 깨끗하고 정연하였으며 건물들이 현대적이면서도 사회주의맛이 한껏 살아났다, 그야말로 하나의 완전한 《류행에술》의 도시였다고 말하였다.

제아무리 현실을 외곡하고 기만하려 해도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우리 인민이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인 사회주의사상과 신념으로 떠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무엇으로도 허물어버릴수 없다.

머지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인류의 감탄의 목소리가 합창이 되여 울려퍼질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룡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선의 현실

젊음에 넘쳐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그대로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세금이라는 말자체를 모른다. 조선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으며 살림집들을 국가에서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공화국의 모든 시책들은 인민생활향상에로 지향되고있다. 가장 훌륭한 창조물들도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극장 등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나서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성과들을 목격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경상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모습은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브라질공산당 에스뻬리뚜 싼또주위원회 조직비서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생존권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가 선택하고 건설한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의 이 놀라운 현실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7년전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일떠세우시였다. 주석의 위업을 이어 **김정일**각하께서는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다지시였다.》

캄보쟈왕국 왕궁담당 부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대원수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는 조국과 인민앞에 거대한 업적을 남기신 위인들이시다. 그분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경제건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씨베르 발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있는 조선은 도발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추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는 강국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인디아주체사상자력갱생연구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원수각하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떨치고있다. **김정은**원수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백전백승의 력사만을 붉은 기록에 새기며 나아가는 사회주의 우리 나라는 자주시대의 중심에 거연히 솟아 끝없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총련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악랄한 탄압소동

일본반동들 혹가이도의 총련기관들과 조선학교를 강제수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탄압이 날이 갈수록 더욱 비렬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태이후 총련의 활동과 조직내부를 탐지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려온 일본당국이 또 하나의 모략적인 탄압소동을 벌려놓았다.

6일 일본 혹가이도경찰당국은 그 무슨 재일동포들의 《사기사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총련 혹가이도본부와 본부 회관내에 있는 모든 총련기관들,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에 대한 강제수색에 광분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혹가이도 삿뽀로시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동포가 2013년 당시 조청 혹가이도본부 일군과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 교원들을 실지 고용하지 않고 그들의 명의로 고용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기죄》로 몰아대고있다.

이 《사기죄》혐의와 관련하여 그들이 사업하는 조선학교와 총련 혹가이도본부 회관에까지 수색을 확대하며 살벌한 폭압선풍을 일으켰다.

또한 고용보조금 수급신청서의 작성을 도왔다는 구실로 이전 총련 혹가이도상공회 관계자를 부당하게 체포하였으며 총련본부 회관내에 있는 혹가이도상공회 사무실도 강제수색하였다.

지어 경찰들은 총련 혹가이도본부 위원장의 집에도 수색하려고 달려들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언론을 동원하여 혹가이도의 총련조직, 총련일군들이 《사기사건》에 가담하고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경찰이 사건혐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총련본부 위원장의 집을 수색하려고 하고 총련본부 회관내에 있는 모든 총련기관들을 강제수색한것은 총련을 비합법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단체인것처럼 몰아 일본사회에 총련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더한층 고취시키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일본반동들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러한 모략소동을 여러차례 감행하였다.

3월에는 동방주식회사의 《외환법》위반행위와 억지로 련결시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등 일군들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전례없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으며 5월에는 또다시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한 3명의 총련일군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강제수색하였다.

불법무도한 총련탄압행위로 온 겨레와 세계여론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배격을 받은 일본반동들이 이번에 또다시 《사기사건》에 대해 떠들며 총련일군들에게로 탄압을 확대하며 강제수색과 체포놀음을 미친듯이 강행한것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탄압소동이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에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맞으며 전동포적인 경축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시기에 감행된것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도발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극악한 탄압책동이다.

지금 총련중앙의 지도밑에 각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당국의 날강도적인 정치적탄압책동을 단죄규탄하는 항의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일본은 조선인대학살만행에 대해 사죄하라

남조선민족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일제강제징용희생자유해봉환추진위원회와 《한민족운동단체련합》을 비롯한 남조선의 120여개 민족단체들이 간또대지진때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때로부터 9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일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19년 3.1인민봉기때 조선사람들을 대량학살한 일제가 그로부터 4년후 1923년 간또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를 입고 민심이 혼란되자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터무니없는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군대와 경찰은 물론 민간인으로 무어진 《자경단》을 내몰아 동포들을 대대적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일본정부는 조선인대학살에 가담하였을뿐아니라 그를 조장, 묵인하였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지난 4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서까지 대학살에 의한 희생자들의 수를 축소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92년전에 감행된 대대적인 학살범죄사건이 일본근대사에서 론의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야만성과 후진성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92년이 되도록 죄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은 고사하고 사실인정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실로 위험천만한 중대한 문제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더우기 일본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운운하며 동북아시아에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군사대국화,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성명은 폭로하였다.

성명은 간또대지진때 저지른 조선인대학살만행에 대해 일본정부가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즉시 폐기하고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륙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대명사로 불리워온 아프리카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해나가고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나라들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은 아프리카동맹이다.

아프리카동맹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멍에에서 벗어난 아프리카나라들의 주권과 령토완정, 독립을 수호하며 인민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온 아프리카통일기구의 후신이다.

아프리카동맹은 1999년 9월 9일 리비아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 특별수뇌자회의에서 발족되였다.

이 회의는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진보를 이룩하려는 아프리카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주목을 끌었다. 회의는 대륙의 통합을 요구하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주장을 일치시키고 구체적인 실천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프리카대륙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 회의에서 아프리카동맹을 창설할데 대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그후 평화와 친선,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대륙의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2002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제1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이때부터 아프리카동맹은 정식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프리카동맹의 창설은 대륙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략탈과 간섭을 배격하고 서로 단합되여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동맹의 기본사명은 아프리카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대륙의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강력한 아프리카를 건설하려는 대륙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는데 있다.

아프리카동맹은 54개 성원국들을 망라하고있으며 산하기구들로서 총회, 집행리사회, 상임대표위원회, 아프리카동맹위원회, 평화 및 안전리사회, 범아프리카의회, 아프리카인권 및 인민권리재판소 등을 두고있다.

아프리카동맹은 창설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기구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리익을 도모하고 자립적발전을 위한 대륙나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그 과정에 2017년까지 미국과 서방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를 내올데 관한 문건들도 채택되였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지위가 현저히 높아가고있는것은 아프리카동맹의 역할과 노력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대륙의 정치경제적통합을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며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동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며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은 응당한 성과를 보게 될것이다.

김 국 철

무모한 합동군사연습소동

미국과 일본이 공모결탁하여 침략전쟁에 뛰여들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8월 31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대규모적인 상륙훈련이 시작되였다. 9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에는 미군측에서 해군함정과 약 3 000명의 병력이, 일본측에서는 호위함과 직승기 그리고 약 1 100명의 병력이 동원되였다. 1일에 있은 훈련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함선들이 함포사격을 해대며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실업자 증대

오스트리아에서 8월에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 더 늘어나 38만 4 585명에 달하였다.

결과 나라의 실업률은 8.4%에 이르렀다.

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5114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